

한국 현대소설의 여담(餘談)적 담화 연구*

- 최인훈의 『서유기』를 중심으로 -

노대원(제주대)

〈목 차〉

- | | |
|--------------------|----------------------------|
| 1. 여담적 담화 연구의 의의 | 3. 『서유기』의 담화 구성과 언어사회학적 특성 |
| 2. 여담적 소설 텍스트의 유형화 | 4. 소설의 여담 연구를 위하여 |

1. 여담적 담화 연구의 의의

소설 텍스트의 담화(discourse)에서 '여담(餘談, digression)'이란, 본래 다루고 있던 주제를 잠시 접어두고 다른 이야기를 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란다 사브리(Randa Sabry)에 의하면, 여담은 “매우 부정부적인 요소들 – 황당한 연상, 기억의 공백과 장애, 다소간 유용한 삽입구들의 미친 듯한 증가, 불쑥 떠오른 훌륭한 생각들, 방향 상실, 갑작스런 단절로 귀착되는 표류, 어쩔 줄 몰라 내뱉는 “내가 어디까지 얘기했지?”라는 말 등등 –”¹⁾이다. 여담은 수다와

* 이 논문은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6S1A5A8020376)

장광설, 황설수설과 증언부언의 담화적 형식으로 간주된다. 한편, 서양의 수사학(修辭學)은 말과 글을 효과적이며 심미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호소/설득 전략으로 이해 되어왔다. 특히, 규범 수사학에서 이러한 여담은 ‘주제 이탈’ 또는 불필요한 잉여의 담화로 판단되어 전통적으로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배제되어 왔다.²⁾ 여담에 대한 이와 같이 거의 일방적일 정도의 부정적이고 비판적 관점은 근대적인 의미의 문학 비평과 문학 연구 영역에서도 강력하게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실제 일상 언어생활에서 쉽게 확인이 가능한 것처럼, 모든 여담이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특히, 문학 텍스트, 그 중에서도 텍스트에 대한 수정이 얼마든지 가능한 기술(記述) 텍스트의 경우에, 여담은 작가의 특정한 의도를 내포하고 있는, 이른바 ‘반(反) 수사학적 수사학’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런 이유에서 현대소설 텍스트에서 여담이 수행하는 기능에 대한 논의가 가능하다. 물론, 여담을 단순히 기능적인 관점으로만 이해하면 모순에 직면하게 된다. 여담은 오히려 무기능적인 담화(쓸모없는 담화 부분)로 규정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와 더불어 여담의 심미적 효과에 대한 관심이 중요하다. 여담은, 소설의 중심 주제나 중심 서사로부터 단지 이탈한 것으로만 치부되기 쉽다. 그러나 실제로 여담은 풍부한 사회문화적 맥락과 지적 담론을 포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특정 텍스트와 작가에 대한 해석과 평가를 갱신할 수 있는 새로운 단서가 된다.

여담에 대한 문학적 연구는 일원주의보다 다원주의에 대한 관심이 높고

-
- 1) 란다 사브리, 이충민 역, 『담화의 놀이들』, 새물결, 2003, 10면. 이러한 독특한 정의 방식 역시 여담의 형식적 특징을 흥미롭게 반영한 것임을 주목할 수 있다. 사브리의 이 연구서는 여담에 대한 여담적 형식의 연구서를 표방하고 있다.
 - 2) 서양의 수사학과 비교해서, 동양의 전통적인 수사학 및 문학비평에서 여담적 담화에 대한 견해 역시 중요한 향후 연구 주제가 될 것이다. 가령, 이규보의 ‘구불의체(九不宣體)’에서 시골 사람들이 모여 떠드는 문체인 ‘촌부회담체(村夫會談體)’나 강아지풀이 밭에 가득찬 것과 같은 문체인 ‘낭유만전체(蕩莠滿田體)’는 여담적 담화에 대한 제재와 비판으로 이해된다.

개방적 · 탈중심적 사유를 선호하는 현대 사상의 큰 맥락을 염두에 둘 때에도 의미 있는 문학 연구 주제다. 미하일 M. 바흐진(Mikhail M. Bakhtin)이 소설 장르의 형성에 대해 논의하면서,³⁾ 소설이란 본래 대화적이며 개방적인 장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한 것을 고려해볼 때, 그리고 동시대의 (포스트모던한 경향의) 문화 텍스트들이 점차 혼성적이며 탈중심화된 텍스트 구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연구는 적절한 시의성을 획득한다.

여담은 흔히 중심 주제에서 이탈한 주변적이며 무질서의 과잉으로 간주되는 담화 방식이므로, 이러한 규범의 위반적인 언술 방식은 근대의 견고한 이성중심주의적인 담화 규범에 대한 반성과 비판이 된다. 규범적이며 절제된 담화가 지니는 구심력(centripetal force)에 맞서는 여담의 탈규범적이며 자유로운 원심력(centrifugal force)은 권위주의적이며 중앙집권적인 이데올로기에 대항하고 그것을 성찰하는 정치적 함의를 내포한다고 볼 수 있다. 여담 특유의 담화 방식으로부터 정치적 해석과 여성주의적 해석 등에 이르기까지, 폭넓고 깊이 있는 해석의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다.

여담의 문학적, 수사학적 효용에 대해서는 아리스토텔레스 당시의 고전 그리스 수사학으로부터 오늘날의 현대적인 수사학 연구에 이르기까지 전적인 무시 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만큼, 여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와 탐색은 국내의 문학 연구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국내에는 란다 사브리의 충실한 여담 연구서인 『담화의 놀이들』이 프랑스문학자인 이충민에 의해 번역된 것 이외에는 연구가 사실상 영성(零星)한 편이다. 다만, 사브리의 연구서의 국내 번역에 힘입어 한국 문학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여담 연구의 가능성이 열렸다. 송기섭은 사브리의 이론적 논의에 의지해 문학 용어로서

3) 미하일 바흐진은 예컨대, 다음과 같이 발언하고 있다. “주요한 시적 장르들이 언어 · 이념적 삶의 통일적이고 집중적이며 구심적인 힘들의 영향하에서 발전하고 있을 때, 소설과 소설지향적인 예술적 산문은 탈중심화를 도모하는 원심적 힘들에 의해 형성되고 있었다.” 미하일 바흐진, 전승희 · 서경희 · 박유미 공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 비평사, 1988, 79면.

‘여담’을 본격적으로 동원한 국내 최초의 학술적 논의⁴⁾를 시작하여 주목을 요한다. 여담을 ‘서사전략(narrative strategies)’의 일환으로 파악한 이 논문은 서사학 이론에 근거하여 황순원 소설 『카인의 후예』의 여담이 지니는 서사적 기능을 논의한다. 여담을 다룬 국내 최초의 논문이라는 한계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논문은 여담을 지나치게 서사 구조 체계 안에서 파악하여 기능적인 것으로 환원해버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서사학적인 방법론의 논의들과 변별점을 상실해버리는 한계를 지닌다.⁵⁾

이상진의 『토지』에 나타난 여담의 성격과 서술전략⁶⁾은 본격적으로 특정 텍스트를 여담에 집중해서 분석한 의미 있는 논문이다. 이 연구는 박경리의 『토지』를 분산적이고 탈중심적이며 개방적인 서사구조를 지닌 작품으로 본다. 역시 『토지』를 분석한 이상진의 다른 논문, 『토지』에 나타난 여담의 수사학⁷⁾은 두 개의 서(序)와 결텍스트, 이음매와 인물의 기능, 여담의 삽입양상과 서사구조의 관련 양상을 논의했다. 『토지』에서 여담이 차지하는 부분은 비록

- 4) 송기섭, 「여담의 구실과 서사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 5) 이 외에, 장석주의 문학평론인 「여담적 작가의 탄생 - 김훈론」(『풍경의 탄생』, 인디북, 2005)은 김훈을 ‘여담적 작가’로 규정하면서 김훈 소설들의 미적 특성을 여담으로 이해한다. 김훈 소설에 자주 등장하는 상세하고 긴 묘사, 경구적 발언, 감각 표현 등에 주목하여 이를 여담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나 장석주의 논의는 비평적 에세이이므로, 본격적인 의미의 학술적인 논의가 아닌 까닭에 ‘여담’이라는 논의의 핵심어를 중심으로 한 체계적인 형식적 분석과 그와 연관된 엄밀한 해석을 수행하고 있지 않다. 정혜경의 논문 「이제하 소설의 서술 방식 연구」(『현대소설연구』 제33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와 고영진의 논문 「병리학적 환상과 글쓰기 방법으로서의 여담」(『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은 각각 이제하와 허윤석의 소설 텍스트를 대상으로 하여 서술 방식을 분석하고 있다. 이 두 연구에서 여담은 중심적인 연구 주제가 되지 않고 다만 주변적으로 언급하는 이론으로 그치고 있어서 본격적인 의미의 여담 연구라고 하기 어렵다.
- 6) 이상진, 「『토지』에 나타난 여담의 성격과 서술전략」,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 7) 이상진, 「『토지』에 나타난 여담의 수사학」, 『구보학보』 13집, 구보학회, 2015.

전체의 10%도 되지 않으나, 서사적 맥락의 단절과 지연, 주제적 마디의 형성 등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상진의 연구들은 대하소설 또는 역사소설과 같은 분량이 많은 한국 장편소설의 여담을 연구하는 데 중요한 참조점이 될 것이다. 그러나 장편소설의 장르적 담화 특성상, 여담이 삽입된 경우와 ‘여담적 소설’ 그 자체는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여담이 일부 문학적 ‘기법’으로 사용된 경우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로 여담이 텍스트 상에서 차지하는 미학적 비중과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담 연구는 한국 현대소설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이자 해석의 근거가 될 것이므로, 본격적으로 시도되어야 할 문학 연구 주제이다.

2. 여담적 소설 텍스트의 유형화

개별 작품마다 정도의 차이가 존재하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소설 텍스트는 여담적 담화를 내장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목표인 여담적 담화를 집중적으로 탐문하기 위해서는 소설 내의 여담적 담화를 주요한 수사학적 · 서사적 전략으로 활용하는 작가 및 소설 텍스트에 특히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여담적 담화에 집중해서 다양한 한국 소설 텍스트를 독해하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여담적 작가 및 여담적 텍스트에 대한 유형별 범주화가 필요하다. 개별 텍스트에 대한 분석적 비평 작업과 유형화 및 이론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국 현대소설의 여담적 담화 또는 여담적 소설 텍스트에 대한 충실한 연구가 수행될 것이다. 즉 상향식의 구체적 연구 작업(bottom-up)과 하향식의 추상적 연구 작업(top-down)이 동시에 병행되어야 한다.

한국문학은 여담에 대한 현대 문학비평의 부정적인 관점, 그리고 문예지에 게재되는 단편소설 중심의 문단문학의 견고한 제도 때문에 여담적 텍스트가 다양하거나 많지 않다. 오히려 그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여담 텍스트의 발굴과

비평, 유형화 작업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 것이기도 하다. 다음은 여담적 담화가 특징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유형의 소설들을 간략하게 제시한 것이다. 이를 기본으로 삼아, 향후 후속 연구들에서는 더욱 명확한 기준을 세워 범주화하고 텍스트들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아래의 유형화는 당연히 장르의 단편 분류가 아니라 경향성에 관한 열린 분류이므로, 서로 배제하기보다는 여러 유형의 경향성을 동시에 갖는 소설들이 발견될 수 있다.

1) 지식(인) 소설과 관념적 소설의 여담 - 최인훈, 박상룡 등

사변적이고 관념적인 경향의 소설의 담화인 경우 지적 담론의 여담화 현상이 주목된다. 이들 소설에서는 지식인 주인공 또는 작중인물이 등장하거나 지식과 관념 서술이 소설의 중심이 되어 전개된다. 이 유형은 최인훈 소설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광장』과 『회색인』, 『서유기』 등 그의 소설은 문학 논평이나 정치·사회 비평, 철학적 사변과 같은 지성적인 담론이 소설의 과잉된 여담으로서 빈번하게 도입되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박상룡 소설에서는 종교적·신화적·철학적 인문학 담론을 텍스트 내부로 적극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이들 유형의 소설은 소설 장르의 서사성보다는 에세이 장르의 유연한 포괄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다른 소설들에 비해 서사성이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이유로 자주 문학 비평가와 문학사가들 비판 대상이 되기도 한다.

2) 포스트모던 전위소설의 여담-이인성, 장정일, 성석제, 박형서 등

소설가이자 문학이론가인 데이비드 롯데(David Lodge)가 현대소설의 담화에 관해 논의한 바에 의하면, 최근의 포스트모던 경향의 소설은 미메시스(Mimesis)보다 디에게시스(Diegesis)가 우세하다.⁸⁾ 소설에서 서술자 및 작가

8) 데이비드 롯데는 포스트모더니스트 소설에서 디에게시스가 부활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데이비드 롯데, 여홍상 역, 『마호친과 현대 소설의 담론』, 여홍상 편, 『마호친과 문학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334면.

한편, '포스트모던적 문학 경향'은 특정 시기의 문학에만 관련되는 것은 아니다. 포스트모

의 개입이나 참여를 일방적으로 비난할 수 없으며, 특정한 사례별로 그 미학적 효과와 기능을 판별해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포스트모던 소설에서 서술자와 작가의 목소리가 증대함과 동시에 여담의 비중 역시 증가하게 되는 지점에 주목해볼 수 있다. 이는 기존 소설 형식을 탈구축하는 포스트모던 소설의 메타픽션적(자기반영적) 속성과 유희적 성격과 관련되는 현상이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 이인성의 『한없이 낮은 숨결』과 장정일의 초기 단편들에서 시작해서, 성석제 등의 유희적인 소설과 2000년대 이후의 최근 작가들인 박형서 등은 자신의 소설에 이러한 여담적 담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3) 민중주의 대하장편소설의 여담 - 황석영, 조정래 등

황석영의 대하장편소설 『장길산』은 한국의 구술 서사 및 전통 연행의 형식적, 주제적 측면을 의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이 소설의 다양한 삽입 서사는 민간 전통의 설화와 신화를 포함하고 있고, 때때로 중심 스토리를 벗어나 있는 여담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삽입된 여담적 이야기들은 본래 중심 스토리보다 오히려 더욱 독자의 흥미를 자극하는 서사로 작동하며, 민중주의적 서사로서 주제 의식과 형식미학에서 더욱 돋보이기도 하여, 소설의 전체적인 문학적 위상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한다. 조정래의 『태백산맥』, 『아리랑』, 『한강』 등의 대하장편소설 등에서도 이러한 측면에서 유사한 분석이 행해질 수 있다. 두 작가에게는 분명 영웅적 남성 인물을 중심으로 하는 소설적 중심축이 있지만, 주인공 중심주의를 넘어서는 민중주의적 인물들의 다양성, 시점과

단한 경향은 근대의 초기 문학에도 나타날 수 있으며, 원시 예술에도 나타날 수 있다. “전근대, 모던, 포스트모던의 구분을 구체적인 시간상의 간격이나 명확한 시대적 단절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데, 그것은 각 시대의 내용과 스타일이 시간상으로 서로 겹치기 때문이다. 전근대적 유형의 신화적 · 종교적 정통성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도 남아 있으며, 포스트모더니즘적인 회의론을 전근대 시대의 작가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에른스트 벨러, 이강훈 · 신주철 역, 『아이러니와 모더니티 담론』, 東文選, 2005, 25~26면.) 예컨대, 근대 초기의 소설인 미겔 데 세르반테스의 『돈 키호테』와 로렌스 스톤의 『트리스트럼 샌디』 등은 가장 포스트모던한 경향의 소설로 논의된다.

이야기의 다양성이 여담을 통해 구현된다.

4) **일상 경험담과 세대 풍속 소설의 여담** - 박완서, 최명희, 박경리 등 여담적 담화에 주목하여 해당 여성 작가들의 소설을 분석하고 해석한다면, 이 소설들이 지니고 있는 수사학적, 담화론적, 문체론적 특성의 한 단면을 문체적으로 발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것이다. 박완서, 최명희, 박경리 등의 소설에서 여담적 담화는 특히 이른바 '수다'와 '입담'으로 구성되면서 서사 진행의 원동력으로 작동한다. 남성 작가 소설의 담화적 특성과는 상이한 여성적 글쓰기의 탈중심적인 성격을 페미니즘 문학 연구와 연계하여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여성 작가의 소설의 여담적 담화는 특히 일상생활과 민속, 풍속 등을 세밀하게 묘사하고 있어서 풍성한 사회문화적 컨텍스트와 연결된다. 가령, 박완서의 <엄마의 말뚝> 연작과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에서는 사회적 변동과, 그리고 전쟁과 분단 체험을 과잉될 정도로 풍부한 일상사와 함께 다루고 있다. 또한 최명희의 『혼불』과 박경리의 『토지』 등의 대하소설은 민간 전래의 세시풍속을 매우 풍부하고 치밀하게 기술(thick description)한다. 한편, 이 유형에 부기할 만한 하위 경향으로서 자서전적 소설 텍스트들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하위 경향을 구분할 지 여부는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

5) **심리주의 및 정신병리적 소설의 여담** - 이상, 허윤석, 최인훈 등 소설의 담화를 구성해나가는 서술자의 심리와 정신 상태의 이상 또는 비정상적으로 인해 여담적 담화가 진행되는 소설들이다. 심리주의적 소설 또는 정신병리적 소설의 유형이라고 할 수 있다. 서술자의 온전하지 못한 정신 상태 또는 의도적인 심리주의적 서술 방식이 이 유형의 소설들의 탈중심적인 형식 미학과 주제적 특징을 결정짓는다. 서술자 또는 주인공의 실제적 행동과 사건보다는 심리적 실재와 정신적 사건들이, 인물들의 의식보다는 무의식이, 그리고 과거의 트라우마 또는 이와 관련된 판타지가 부각되는 텍스트들이다. 위축된 행동과

과잉된 의식으로 이 소설 유형을 분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유형화는 규범적이고 확정적인 것이라기보다는 기술적이며 유동적인 것이다. 따라서 각각의 유형은 상호배제적이지 않으며 유형별로 중첩이 이루어지는 소설도 포착 가능하다. 예컨대, 포스트모던 전위소설과 관념 소설, 심리주의 소설은 유사한 측면이 존재하며, 민중주의적 대하소설은 세태 풍속 소설과 친근성을 지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유형화는 여담적 소설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이론화를 가능하게 해준다고 본다.

<그림1. 여담적 담화의 다양성 및 스펙트럼>

구분	스펙트럼		
전통/탈근대	전통 연행	◁ 여담적 담화 ▷	포스트모던 소설
구술/실험	구술 서사		전위소설
	⇕		⇕
민중/지식인	민중주의 대하소설	◁ 여담적 담화 ▷	지식인 · 관념 소설
일상/비일상	일상 경험담 · 세태 풍속 소설		심리주의 · 정신병리적 소설

<그림1.>은 지금까지의 여담적 소설의 유형화를 몇 가지 구분에 따라 다시 도시(圖示)한 것이다. 전통적인 서사 유형과 구술 서사는 여담적 담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며, 흥미롭게도 또 다른 극에 위치한 포스트모던 소설이나 전위적 · 실험적 소설은 ‘담화의 놀이’를 극단에까지 밀어붙여 여담적 담화를 생산해낸다. 또한 민중주의 대하소설이나 일상 경험담과 세태 풍속을 담은 소설에서는 여담적 담화가 풍부하게 내장되어 있는데, 그에 상반되는 유형의 소설로 분류될 수 있는 지식인 소설과 관념 소설, 심리주의적이고 정신병리적인 소설에서도 여담적 담화가 산출될 수 있다. 물론 이때의 두 유형의 여담의 내용과 주제, 그리고 스타일은 상반될 것임을 알 수 있다. 수직축은 그러한 여담의 스타일과

내용에 따라 구술적이며 일상 경험담이 하나의 축으로 묶일 수 있고, 전위적 소설과 지식인 소설 및 심리 소설이 하나의 축으로 묶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 '지식(인) 소설, 관념적 소설' 또는 네 번째 '심리주의 및 정신병리적 소설'의 범주로 분류한 최인훈의 소설을 택해서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최인훈 소설 가운데 '가장 난해한 작품'으로 악명 높지만, 여담적 담화, 패러디, 환상 등 언어 구성과 담화 · 형식적인 스타일면에서 매우 개성적인 장편소설인 『서유기(西遊記)』⁹⁾에 집중하고자 한다. 이 소설에서 여담은 그 특유의 난해성을 제공하는 중요한 형식적인 요인인 동시에 소설의 미학적 효과와 더불어 주제비평적인 관점에서도 주목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3. 『서유기』의 담화 구성과 언어사회학적 특성

1) 변화무쌍한 관념적 모험으로서 여담적 담화

최인훈의 『서유기』는 『회색인』과 함께 독고준이라는 국문과 청년을 등장시키고 있는 일종의 연작소설이다. 『회색인』의 마지막 장면은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문을 열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서유기』의 초반부는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을 나서는 장면이며, 마지막은 이유정의 방에서 나와서 자기 침대로 가는 장면이다. 『서유기』의 현실 세계는 이처럼 소설의 서두와 결말 부분을 제외하면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며, 소설의 다른 나머지 분량은 독고준이 자신의 방으로 걸어가는 짧은 순간의 온갖 상념과 환상으로 채워진다. 『회색인』 역시 관념적 진술이 상당한 편이지만 비교적 주인공의 현실적인 삶을 재현하고 있는데 비해, 그 속편(續篇)격인 『서유기』는 이처럼 현실의 삶을 최소한으로

9) 최인훈, 『서유기』, 문학과학사, 1977/2008, 앞으로 『서유기』의 본문을 인용할 경우 면수만 표기한다.

진술하며 그 대신 관념과 정신, 환상의 세계를 서술한다.

최인훈의 『서유기』는 그 표제(“西遊記”)에서 명시되고 있는 것처럼, 오승은의 중국 고전문학 『서유기』와 패러디의 상호텍스트적 관계에 놓여있다. 오승은의 『서유기』가 손오공 일행이 겪는 ‘모험의 언어’라면, 최인훈의 『서유기』는 현대소설이 추구하는 바 ‘언어의 모험’이다. 최인훈 소설의 전개 과정에서 보더라도, 『광장』이 한 청년이 겪는 혁명과 전쟁의 모험을 그리고 있는 것에 비해서, 『서유기』는 독고준-최인훈의 정신의 내적 모험을 그리는 것에 가깝다. 최인훈의 『서유기』는 주인공 독고준의 현실 세계의 사건과 모험을 진술하지 않고 독고준의 (무)의식적 세계에 대한 모험을 진술한다.

i) 思念의 走馬燈을 한 계단 한 계단 천천히 밟으면서
그는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갔다. (8면.)

ii) • 구름을 타고 구만리의 굉장한 비행을 했다고 생각한 것이 부처의
손바닥에서 아장거린 걸음마였다. ‘손오공’ 형의 이야기. (242면.)

위의 인용문 i)은 최인훈의 『서유기』에서 서문 뒤에 잇따르는 본문의 제사(題詞)¹⁰⁾이며, 인용문 ii)는 본문의 일부 대목이다. 인용문 i)은 최인훈의 『서유기』에서 일어나는 현실적 세계의 사건 전부에 해당한다.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에 잠깐 들어섰다 다시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는 그 짧은 순간 동안에 벌어지는 온갖 “思念의 走馬燈”이 최인훈의 『서유기』를 이룬다. 따라서 이 제사는 최인훈 『서유기』의 스토리를 한 문장으로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인용문 ii)는 최인훈의 『서유기』와 오승은의 『서유기』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준다. 오승은의 『서유기』를 언급함으로써 최인훈 자신의 장편소설 『서유기』에 대해 간접화된 자기 지시적 담화를 수행한다. 오승은의 『서유기』에서 손오공이 “구만리의 굉장한 비행”을 하지만 결국 그것이 “부처의 손바닥에서

10) 미셸 샤를르는 “제사의 기능은 보통 뭘지 알 수 없지만 아무튼 생각할 거리를 주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란다 사브리, 앞의 책, 393면, 주 9.

아장거린 걸음마”에 불과한 것처럼, 최인훈의 『서유기』에서 독고준이 겪는 관념의 모험은 반대하지만 결국 현실 세계에서는 1층에서 2층으로 옮겨가는 계단 위에서 벌어지는 상념에 불과하다. 즉, 최인훈의 『서유기』는 본문 시작과 끝의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다양한 여담적 담화들과 환상적 사건들로 구성된 서사라고 하겠다. 이렇듯 인용문(i)은 제사로서 본문의 방대한 탈선(여담)을 표시하는 기능을 한다.

다음 인용문은 최인훈 소설 『서유기』의 서문이다.

이 필름은 고고학 입문 시리즈 가운데 한 편으로, 최근에 발굴된 고대인의 두개골 화석의 대뇌 피질부에 대한 의미론적 해독입니다. [...] 이 한 편을 특히 고른 것은 최근의 발굴이라는 것뿐 아니라 한국 화석의 일반적 특징인 황폐성과 무질서성이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나 있는 까닭입니다. [...] 그런 뜻으로 언제든지 재분해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질이 좋은 수용성 접착제로 가볍게 이어놓았으며 화학 처리, 원형 등은 일체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학문적 엄격성과 학문의 대중화라는, 상극하는 명제를 잠정적으로 절충하느라 애썼습니다. 변명이 아닙니다만, 이것은 과도기에 삶을 받은 자의 비애라 하겠습니다. [...] 이 필름은 피사체 자신의 성질상, 그리고 전기한 제작 방침에 따라 비교적 느린 템포를 썼으며 클로즈업을 끊임없이 삽입하였고, 동일 장면의 반복 및 심지어는 영사기의 회전을 중단시키고 중요한 화면을 정물 사진으로 볼 수 있게 운용하였습니다. 그러면 곧 필름을 감상하시겠습니다. (7면.)

서문은 제라르 쥬네트(G rard Genette)가 고안한 의미에서 곁텍스트(paratexte)¹¹⁾인데, 그 자체로서 본문에 대해서 여담의 위치에 있다. 서문은

11) 곁텍스트(paratext)는 어떤 방식으로든 서사와 관계되는 서사 외부의 물질이다. “곁텍스트는 서문, 차례, 제목, 표지의 광고, 삽화와 같은 서사적 매체(주변텍스트peritexts)와 물리적으로 묶일 수 있다. 이 또한 매체와는 분리될 수 있지만, 저자의 논평 · 서평 같은 저자의 다른 저작(‘바깥텍스트epitexts’)으로도 연결된다. [...] 곁텍스트는 이따금 우리가 서사를 해석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 H. 포터 애벗, 우찬재 외 공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학지성사, 2010, 445면.

텍스트의 조직, 그리고 형식과 제시 방법의 선택에 대한 전반적 정보와 이론화를 제공한다. 또한 결텍스트들 중에서 오직 서문에서만 여담을 본문에 이어주는 통합의 변증법이 명시적으로 언표 될 수 있다.¹²⁾ 최인훈 소설 『서유기』의 서문 역시 결텍스트로서 여담이며, 소설 본문 텍스트의 조직, 형식과 제시 방식을 언표화하는 메타텍스트(métatexte)이다. 이 서문은 『서유기』의 본문 텍스트 전체를 ‘필름’으로 규정하면서 “황폐성과 무질서성”의 특징을 자체적으로 제시한다. 무질서와 비통일성, 비체계성 등은 여담의 전형적인 담화적 속성이며, 따라서 이 서문은 본문의 여담적 성격을 메타적으로 지시하고 있는 것이다. 『서유기』에서 중앙 집중적이고 일원화된 서사적 플롯의 부재는 “언제든지 재분해할 수 있”는 탈중심화된 텍스트로, “수용성 접착제로 가볍게 이어놓”은 텍스트 즉, 단속적(斷續的)인 삽화(插話)¹³⁾들의 연쇄로 구성된 텍스트로 설명된다. “느린 템포”, “클로즈업”, “동일 장면의 반복”, “중단”이라는 영상적 기법들의 비유는 『서유기』 본문 텍스트의 여담적 담화 조직에 상응하는 것이다. 여기서 서문은 이른바 ‘필름’, 즉 『서유기』 본문 텍스트의 여담적 담화 구성 방식에 대해서 변명을 부정하고 있으나, 자체적으로 일종의 “변명”을 수행한다.

최인훈의 『서유기』는 묘사, 서술, 논술, 대화 등 다양한 담화 방식을 총동원하여 소설 형식을 복잡하게 구성하고 있다. 패러디, 환상, 꿈, 우화, 독백적 서술, 희곡적 상황 제시, 겹겹의 액자 구조, 방송과 편지·사변적 노트·시(詩) 등의 삽입 텍스트, 인문학적 성찰, 문학 및 정치 평론, 역사적 실존 인물의 등장 등 매우 다채로운 형식적 기법이 범람하듯 활용된다. 미하일 M 바흐찐은 소설 ‘주인공(hero)’의 형상과 담론의 형상 간의 밀접한 관련성을 되풀이하여

12) 란다 사브리, 앞의 책, 386면.

“일반적으로 결텍스트는 언제나 텍스트에 관해서 말하고 있지만 텍스트는 결텍스트가 마치 존재하지 않는 듯, 자기가 책이라는 물질적 형태로 존재하지 않는 듯 결텍스트에 대한 완전한 침묵을 지킨다.” 이충민, 『용어 해설』, 같은 책, 621면.

13) 여기서 삽화(episode)는 “일반적 용법과 같이 하나의 일화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야기 속에 삽입되었지만 중심 즐거리와 무관한 채로 존재하는 이야기’로 이해해야 한다.” 이충민, 『용어 해설』, 같은 책, 621면.

주장한 바 있다.¹⁴⁾ 바흐젠의 사유 안에서, 주인공은 단순히 작가에 의한 수동적, 타성적이며, 무기력한 존재가 아니라 유력한 수사학적 결정 요소로, 전개 구조와 의미론적 구성, 그리고 어법과 스타일 등에 영향을 미친다.¹⁵⁾ 예컨대, 오승은의 『서유기』에서는 변화무쌍한 손오공 일행과 마물(魔物)의 인물 형상과 환상적 담화 속성을 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은 최인훈의 『서유기』에서 오승은의 『서유기』에 대한 일부 대목이다.

『서유기西遊記』의 사상은 깊다. 손오공을 다루지 못해서 부처들에게
응원을 청하러 가는 마귀들은 극락의 연못에 있던 고기이기도 하고, 말이기도
하고, 기르던 새이기도 하고, 고양이이기도 하고, 오래 가까이 두고
쓰던 기물이기도 하는 그 이야기에는 가장 깊은 사상이 있다. (261면.)

오승은의 『서유기』에 나타나는 손오공이나 마귀들의 변신처럼, 최인훈의 『서유기』에서도 인물들의 갑작스러운 변신과 순식간의 장소 이동, 물리적 실체들의 변형 등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카프카의 「변신」에서 젊은 세일즈맨 그레고르 잠자가 어느날 갑자기 갑충으로 변신한 것처럼, 독고준은 돌연 구렁이로 변신하기도 한다.¹⁶⁾ 최인훈의 『서유기』에서 이와 같은 인물의 환상적인 변신과 이동은 오승은의 『서유기』와의 상호관련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지만

14) 가령, 악한, 광대, 바보는 주인공의 대표적인 인물 형상이다. 바흐젠은 악한(rogue), 바보(fool), 광대(clown) 유형의 인물들이 특히 두 가지, 즉 작가의 시점(視點), 그리고 소설 안에 나타나는 작가 형상의 위치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미하일 바흐젠, 「소설 속의 시간과 크로노토프의 형식」,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352면.

“악한은 침착하고 쾌활하며 영리한 피를, 광대는 풍자적인 조롱을, 바보는 순진한 몰이해를 각각 지니고 있다. 답답하고 우울한 기만은 악당의 명랑한 속임수로, 탐욕적인 허위와 위선은 바보의 이기적이지 않은 단순성과 긴장한 몰이해로, 인습적인 거짓은 광대의 풍자적 폭로로 대항하는 것이다.” 같은 책, 355면.

15) Charls I. Schuster, “Mikhail Bakhtin as Rhetorical Theorist,” *College English*, Vol. 47, No. 6(Oct., 1985), p. 595.

16) 최인훈 『서유기』의 213면 이하. 「변신」을 명백하게 패러디한 것은 동생 철과 숙을 경제적으로 부양하는 독고준이 구렁이로 변신한 뒤 무시당하는 것에서 확인된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인물들의 천변만화(千變萬化)하는 형상은 텍스트의 속성, 즉 여담의 변화무쌍함과 관련 있다는 것이다.

란다 사브리리는 여담을 그리스 신화에서 변신에 능한 바다의 신 ‘프로테우스(Proteus)’에 비유한다. “여담은 프로테우스처럼 변화무쌍한 것이어서, 하나의 중심축에 종속되어 있으면서도 그 배치 질서와 위계적 우월성을 위협하는 모든 종류의 담화(삽화), 액자 구조의 속이야기, 묘사, 편지 및 다른 삽입 텍스트들, 길게 늘어진 인물들의 연설과 대화, 작가의 재담과 개인적 성찰 등)을 무차별적으로 지칭한다.”¹⁷⁾ 문체들을 범주화하고 언어 형식의 경계를 나누는 일을 하는 수사학자들에게는 여담은 견디기 어려운 부정적인 존재이다. 여담의 불변하는 속성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매우 다양한 이질적인 담화 형식들로¹⁸⁾, 가변적인 것들로 채워질 수 있다는 점이다. 『서유기』와 관련해서 비유하자면, 여담은 ‘손오공’처럼 변화무쌍한 담화이다.

여담은 매우 가변적인 내용과 형식의 담화들로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변신에 능한 ‘프로테우스’나 ‘손오공’에 비유된다. 그리고 여담은 또한, 잡다한 언어 형식들로 전체적인 균형과 통일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전통 수사학과 문학 비평에서 비난하는, 이른바 “호라티우스의 괴물”¹⁹⁾에 비유된다. 다시금 최인훈 『서유기』의 본문에서 인용해보자. “그가 본 것은 구렁이로 바뀐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손이었다. 손에는 팔이 없고 그 손은 몸통에 바로 붙어 있었다.”(213면.) 구렁이로 변신한 독고준의 손은 몸통에 바로 붙어 있어서 균형과 조화와는 상관없이 흉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이처럼 최인훈 『서유기』의 담화

17) 란다 사브리, 앞의 책, 115면.

18) “여담은 어떤 장르이건 취할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한 텍스트 속에서 여담은 언제나 다른 장르를 나타낸다는 특징이 있다.” 같은 책, 469면.

19) “호라티우스의 『시학』의 서두에 나오는 이야기로서, 사람의 머리에 말의 목을 하고 각양각색의 동물에게서 빌려온 사지를 달고 있으면서 다채로운 빛깔의 깃털로 장식되어 위는 미녀요 아래는 추악한 물고기인 동물의 그림을 묘사한 후 호라티우스는 시인에게는 모든 것을 시도할 자유가 있지만 전체적인 균형과 통일성이 없는 작품을 창작할 자유는 없다고 말한다.” 란다 사브리, 앞의 책, 577면, 옮긴이 주 4.

또한 여담적 텍스트로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서문에서 “황폐성과 무질서성”이라고 표현되었듯이, 각양각색의 이질적이고 다채로운 성격의 텍스트들이 난잡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2) 미공의 여담과 (탈)식민지 지식인의 환상적 정체성 탐색

최인훈의 『서유기』에서 독고준의 환상적인 변신이나 이동 등은 고전적인 모험 서사에서의 그것과는 다르다. 오히려 최인훈의 『서유기』에서는 분단 시대 지식인, 또는 더욱 보편적으로 보자면, 제3세계 (탈)식민지의 지식인이 처한 정체성의 위기/혼란과 정체성의 탐색 의지와 더욱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 다음 인용문들은 모두 주인공 독고준이 정체성의 극심한 혼란을 겪고 있거나 상황 파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무기력한 경우이다.

a) 독고준은 헌병에게 붙들려서 논개의 방에 안내된 일의 앞뒤를 더듬어서 자기가 지금 여기 있게 된 경위를 알아내려고 애써보았으나 생각이 잘 나지 않았다. 다만 여름 속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으나 그것을 입 밖에 낼 수 없다는 것과, 또 지금으로서는 그렇게 하고 싶지도 않았기 때문에 무엇이 어떻게 된 일인지 분간할 수 없는 일이다. (105면.)

b) “사실 나는 어떻게 지금 여기 있는지 모릅니다.”

그는 상대방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 무슨 말을 해주었으면 좋을까 안간힘을 썼으나 무슨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

“정말입니다. 나는 사실 내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네, 이만하면 아시겠죠? 네? 내가 누구니까? 제가 왜 감찰관인가요?” (147~148면.)

c) 약? 그는 소스라치면서 그대로 굳어버렸다. 이런 일이. 이게 도대체…… 그는 속으로 껍껍 더듬거리며 두 번 세 번 머리를 저었다. 자욱한 안개가 눈앞에 낀 듯이 느껴졌으나 다음 순간 말짱하게 개었다. 그가 본 것은 구렁이로 바뀐 자기 몸에 붙어 있는 손이었다. 손에는 팔이 없고 그 손은 몸통에 바로 붙어 있었다. (213면.)

폴 리코르(Paul Ricoeur)는 현대 소설에서의 인물의 정체성 상실 문제를 논의하면서, 인물의 정체성 위기는 플롯의 정체성 위기와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지적한다. 인물의 형상과 소설 스타일 간의 밀접한 영향 관계를 주장했던 바흐쾨너처럼, 리코르는 인물의 위기가 다시 이야기 구성에 충격을 던진다고 분석한다. 결국 인물의 정체성 상실은 이야기의 붕괴를 야기하고 결국 이 문학 텍스트를 에세이의 형식에 근접하도록 한다는 것이다.²⁰⁾ 최인훈의 『서유기』 또한 독고준의 지식인으로서의 위기의식과 혼란은 플롯의 와해를 야기하고, 파편화되고 불연속적인 다양한 삽화와 관념의 연쇄, 느슨하고 장황한 담화 구성을 초래한다. 또한 『서유기』의 담화들은 ‘에세이(essai) 형식’²¹⁾과 관련이 깊다. 특히 『서유기』에는 철학, 소설, 시, 정치, 사회, 역사 등의 다양한 분야에 대한 진지하고 또는 다소 가벼운 논의가 방대하게 나타난다.

위의 세 인용문들은 독고준이 겪는 (무)의식적 세계의 모험이 상당히 무기력하고 혼란스러운 것임을 보여준다. 최인훈의 『서유기』를 액자 구조의 서사로 보았을 때, 독고준의 현실 세계 이야기와 (무)의식적 관념 세계 이야기로 구분된다. 외부 이야기는 독고준이 이유정의 방을 나서 자신의 방으로 가는 계단에서의 행로에 불과하며, 내부 이야기는 매우 복잡하고 비선조적인 서사적 진행을 거치지만 결국 독고준이 자신의 유년 시절 고향 즉, “W시의 그 여름”(14면)에 관련된 기억을 찾아나서는 여행/모험의 과정으로 요약된다. 『서유기』 전체의 본문을 두고 따졌을 때, 스토리-시간에 비해 텍스트-시간이 극단적으로 팽창되어 있다. 이러한 소설의 시간적인 특성은 여담적 텍스트에서는 상당히

20) 리코르, 김동원 역, 『서술적 정체성』, 주네트·리코르·화이트·채트먼 외, 석경정·여홍상·윤효녕·김종갑 편,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숲, 1997, 62면.

21) 『서유기』를 에세이 형식으로 본 논문으로는, 박은태, 「최인훈 소설의 미로구조와 에세이 양식 - 『서유기』를 중심으로」, 『수련어문논집』 제26·27집, 수련어문학회, 2001.

“여담들 중 상당수는 완전한 이론적 논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철학, 도덕, 사회, 정치 등의 심각한 주제에 대한 저자의 의견을 몇 쪽에 걸쳐 표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이충민, 『용어 해설』, 란다 사브리, 앞의 책, 621면.

도 하다. 그러나 바흐젠이 도스토예프스키의 소설을 다성악적(polyphonic) 소설로 이해한 것과는 다르게, 최인훈의 『서유기』는 ‘대화(dialogue)’의 원리로 포섭되지 못한다.²⁸⁾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끓고 있는 최인훈의 『서유기』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공존과 상생’의 대화주의적 세계관과 자유로운 카니발의 해방 정신이 아니라, 오히려 비대칭적인 권력관계를 반영하는 의사소통 국면과 주인공 독고준에게 억압적인 수사적 상황이다.

3) 권위적 담론에 포위된 근대 지식인의 비극

이제, 최인훈의 『서유기』에 나타난 수사적 상황과 권력, 그리고 이데올로기의 문제를 논의해보자. 형식적 질서와 통일성을 상실한 것처럼 보이는 최인훈의 『서유기』에서도 반복되는 이미지와 기억이 있어서 해석의 실마리 역할을 한다. 그것은 물론 독고준이 찾아 헤매는 ‘W시의 그 여름’과 관련 있다. W시가 단순히 독고준의 유년 시절 고향이었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아니다. 독고준은 W시에서 중요한 두 가지 외상적 체험을 겪게 된다. 그 하나는 미군기의 폭격이 있는 동안 방공호에서 경험한 여성과의 성적 접촉²⁹⁾이며, 다른 하나는 독고준이

27) 즉, 상상력과 장르의 환상성이 유난히 자유롭다는 점, 대담하고 막힘없는 환상과 모험이 관념적·철학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실험적 환상이라는 독특한 장르가 나타난다는 점, 꿈, 공상, 광기 등의 묘사가 등장한다는 점, 통념적이고 인습적인 사건 진행과 어투, 행동, 예절 등 기존 규준을 위반하는 괴상한 행위와 발언의 장면이 나타난다는 점, 낮은 나라로의 여행이나 꿈의 형식을 통해 사회적 유포피이를 자주 끌어들이는 점, 편지, 웅변, 토론회 등 여러 장르를 삽입하거나 산문어와 운문어 혼용이 나타난다는 점, 삽입 장르들은 다문체성(多文體性)과 다음조성(多音調性)을 강화시키며 산문예술의 대화적 특성을 형성시킨다는 점, 마지막 특성으로 당면 문제를 보는 시사성이 있다는 점 등. 미하일 바흐젠,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키 시학: 도스토예프스키의 창작의 제문제』, 정음사, 1988, 169~176면.

28) 함돈균, 「최인훈 『서유기』의 다성성(多聲性)과 아이러니 연구」, 『國際語文』 제42집, 국제어문학회, 2008, 324면.

29) “요란한 폭음. 문이 열리고 젊은 여자가 달려나왔다. 손을 잡고 뚫다. 방공호 속은 숨이 막힐 듯하다. 강철의 날개가 공기를 찢는 소리가 들리고 쿵, 하고 땅이 울린다.

아동 시절 강요당했던 ‘자아 비판’의 경험이다.

폭격 당시의 경험은 “폭음 소리가 들려온다. W시의 그 여름 하늘을 은빛의 날개를 번쩍이면서 유유히 날아가는 강철 새들의 그 깃소리가.”(14면)처럼, 소설 곳곳에 반복적으로 재현되고 있어 전쟁 기억의 중대함을 알린다. 전쟁은 개인이 목도할 수 있는 가장 폭력적인 상황이며, 이 전쟁은 분단사회의 지식인으로서 독고준에게 민족과 역사, 정치에 대한 고뇌를 가져오게 하는 근본 상황이기 때문이다. 최인훈의 『서유기』에서는 논개, 이순신, 원균, 이광수, 조봉암 등 주로 민족사의 위기에 관련되거나 식민주의에 대한 고찰을 위한 역사적 실존 인물들이 등장하여 지적 고뇌를 언어화한다. 역사적 인물이 등장하는 지적 장광설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흐찐이 인물 형상과 담론과의 연관 관계를 지적했듯이, 해당 역사적 인물들은 각각의 특정한 지적 담론과 소통 방식을 상징한다는 점이다.

북한에 있던 독고준이 아동 시절 강요당했던 ‘자아 비판’의 경험은 억압적 ‘공식문화’³⁰⁾를 반영하는 의사소통 국면들로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서유기』에서는 다음 인용문들과 같이 라디오 방송, 확성기 방송 등 이데올로기적 프로파간다 행위를 반복적으로 보여준다.

(ㄱ) 여기는 ‘조선의 소리’입니다. 곧이어 총독 각하의 말씀이 계시겠습니까. (사이, 이윽고 기침 소리, 목 선 듯한 가래 섞인 음성이) …… 총용한 제국 신민 여러분, 제국이 재기하여 반도에 다시 영광이 돌아올 그날을 기다리면서 은인자중 맡은 바 고난의 항쟁을 계속하고 있는 모든 군인과 경찰과 밀정 여러분. (34면.)

그러자 바로 머리 위에서 굉장한 소리가 나면서 그에게로 무너져 오는 살냄새와 그리고 머리칼.” (236면.)

- 30) 북한사회의 억압적 공식문화에 대한 비판 한 대목, “삼삼칠 박수, 그 촌스런 박래舶來의 원숭이 놀음을 공산주의라는 것을 믿는 사회에서 여전히 놓아두고 있던 것을 생각하면 6·25까지의 북한 사회의 촌스러움, 그나마 공산주의라는 공식론에 어울리는 정서와 예법의 틀도 마련하지 못한 데서 오는 길도는 기분—그런 것이 생각난다.” (277면.)

(ㄴ) 상해정부는 민족의 이름으로 정통正統을 주장합니다. 이것은 신성하고도 당연한 권리입니다. 회고컨대 그 당시에 우리는 행복한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민족이 노예의 사슬 밑에 신음하고 있을 때 그와 같은 행복을 누렸다는 것은 확실히 비극적인 일임에 틀림없었으나 그것이 시적인 진실임에도 또한 틀림없었습니다. (109면.)

(ㄷ) 대한 불교 관음종 방송입니다. 전국의 신도,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을 들으시는 고해화택苦海火宅의 모든 중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종교는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 있어서 절대한 역할을 하였고 오늘에 와서도 그 영향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315면.)

인용문 (ㄱ)에서 제국 총독은 통치술의 하나로 공식화된 방송을 통해 제국주의와 군국주의의 이데올로기를 전파하는 대목이다. 이 방송에서 청취자는 제국의 신민으로 호출되고 있다. 인용문 (ㄴ)에서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족주의자는 제국주의의 대항 담론으로서 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민족의 독립과 해방을 희원하고 자신들의 이념을 웅변한다. 이 방송에서 청취자는 제국의 피식민 지배자들이 된다. 인용문 (ㄷ)에서 불교 종파의 한 방송은 청취자를 중생으로 규정하면서, 그들의 종교적 신념을 변호하며 전파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방송들은 각기 자신들의 이념적 위치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역사적, 종교적 관념들을 변호한다. 이들 방송들은 서로 뒤섞이면서 강요하고, 투쟁하고, 갈등하면서 정신적 담론들의 복잡한 장(場)을 형성한다. 그러나, 이때, '방송'은 일방향적인 메시지 전달에 가깝다는 것을 지적해야만 한다. 방송의 발신자들은 각 이념의 대표자, 전파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만, 청취와 대화의 장을 용인하지는 않는다. 이와 함께, W시에 들어서게 된 이후의 방송 소리들은 대부분 독고준을 간첩으로 공지하고 그를 체포하라는 등 독고준에게 매우 위협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간첩은 W역을 폭파하고 정치보위부에 공격을 가하였으며, 천주교당에서 학교 고개 사이에 있는 가옥들을 파괴하였습니다. 그는 이 모든 파괴

활동을 회상回想이라는 흥기로 범행하였습니다. (296면.)

즉, 이 소설에서 방송들은 담론들의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대화보다는 주로 주체의 의식을 강요하고 억압하는 수직적 담론, 공식적 담론의 폭력성으로 재현되고 있다. 이러한 담론의 악조건 속에서 주체가 경험할 수 있는 정신적 자유는 내면의 환상과 무의식적 방향에 불과하다. 이 소설에서 여담적 담화가 지니는 정치적 무의식은 이와 같이 드러난다.

여러 맑시스트 철학자나 사상가의 견해와 달리, 바흐찐은 이데올로기를 오직 인간의 의식 속에서만 존재하는 추상적인 실체로 파악하지 않는다.³¹⁾ 그는 이데올로기와 언어를 다름 아닌 등가로 보았다. 바흐찐에 의하면, 언어 행위는 어떤 상황에서든 결코 개인적인 현상이 아니라 전적으로 사회적 현상이다. “모든 이데올로기 작품에는 실제로 그것의 창조자나 창조자들의 개성이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성의 표현도 이데올로기 현상의 다른 모든 특성이나 특징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이다. 이와 같이 모든 기호는, 개인의 기호들조차도 사회적이다.”³²⁾ 이 소설에서, 독고준이 어린 시절 경험했던 자아 비판의 억압적 상황은 특정한 개인과 개인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으로 치부될 수 없다. 그것은 권위적 담론이 우세하고, 독백주의적, 일방적 수사학이 지배하는 당시 공산주의 사회의 의사소통 국면에서 비롯됐다. 최인훈이 이 소설에서 가하는 이념적 비판은 물론 공산주의에 대한 일방적인 비난이 아니며, 그것은 여담의 복잡한 구성에서처럼 양가적이며 역설적인 관점을 지닌다.

공산주의란 이름의 노예 생활이 있는 반면에 자본주의란 이름의 자유민 생활이 있을 수 있으며 자본주의란 이름의 노예 생활이 있을 수 있는 동시에 공산주의란 이름의 자유민 생활도 있을 수 있다는 것 (335면.)

31)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 바흐찐의 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8, 52면.

32) 미하일 바흐찐·V. N. 볼로쉬노프, 송기한 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2005, 63면.

바흐진은 담론을 설득의 방식과 권력의 작동 방향을 기준으로 삼아 ‘권위적 담론’과 ‘내적 설득의 담론’으로 구별하였다.³³⁾ 최인훈의 『서유기』에 나타나는 여러 방송들은 그 이념적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일방향적이고, 독백적 수사학이 우세하다. 그것은 근대의 이념들이 그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대화적 소통이 부재한다는 작가의 판단에 근거한다. 최인훈의 『광장』이 제기했던 바, 유폐된 자아의 ‘밀실’과 개인의 자유가 부재하는 ‘광장’의 대립적 모순은 『서유기』에 있어서는 담론의 존재 방식으로 이해된다. 즉 사회적, 소통적 담론이 부재하는 ‘밀실’의 환상과 공상은 역설적으로 일방향적인 ‘권위적 담론’이 장악한 담론의 텅 빈 광장에서 유래한다. 이유정의 방을 거쳐 자신의 2층 방으로 걸어가는 그 짧고도 사적인 시공간에서 이데올로기적 대화와 갈등의 광장을 꿈꾸는 복잡한 서사적 행로가 여담의 정치적 미학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다.

4. 소설의 여담 연구를 위하여

한국 현대소설 연구는 작가 연구나 작품 연구에 경도되어 있다. 작가론과 작품론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연구 주제가 상당 부분 중복될 정도에 이른 것에 비해, 소설의 특정 국면과 기법 차원에서 접근한 이론적 연구는 심화와 확장이 느린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소설에 대한 담화 분석이나 수사학적 비평에서도 발견된다. ‘소설의 여담적 담화’와 같은 연구 주제는 한국 현대문학

33) “한편에는 내적인 설득력과는 무관한 권위주의적인 담론—종교적·정치적·도덕적 담론과 아버지와 어른과 선생의 말 등이 이에 속한다—이 있고, 다른 편에는 모든 특권을 거부하는, 어떠한 권위의 뒷받침도 받지 못하는, 그리고 종종 범조항은 물론이려니와 사회에 의해서도(어른에 의해서나, 학문적 표준에 의해서나, 비평에 의해서도) 인정받지 못하지만 내적 설득력을 갖는 말이 있다. 대개 이념적 담론의 이러한 범주들 사이에서 생기는 갈등과 대화적 상호관계가 한 개인의 이념적 자각의 역사를 결정해준다.” 미하일 바흐진,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161면.

연구 현황을 볼 때, 아직 사각 지대이자 미개척의 영역에 가깝다.

본고는 소설 텍스트의 여담적 담화에 관한 본격적인 수사학적 연구를 위해 소설의 유형화와 실제 텍스트 비평을 시도하였다. 한국 현대소설에서 여담적 텍스트는 첫째, 지식(인) 소설과 관념적 소설, 둘째, 포스트모던 전위소설, 셋째, 민중주의 대하장편소설, 넷째, 일상 경험담과 세대 풍속 소설, 다섯째, 심리주의 및 정신병리적 소설로 범주화된다. 이 논문에서는 특히 최인훈의 『서유기』의 여담적 담화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구체적인 텍스트 비평 작업이 유형화 작업과 연동될 수 있도록 하였다.

여담에 관한 연구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한 주제이며 앞으로도 연구 성과가 기대되는 주제이다. 역발상을 통해, 문학에서 여담이 무시되고 배제된 부정적 영역이라는 관점을 전복적으로 사유한다면, 한국 문학 연구의 진일보를 기대있다. 구체적으로, 소설에서의 여담적 담화 연구는 본 연구 주제와 관련한 수사학적 문학비평의 학술적 성과는 물론, 해당 소설의 장르적 문법과 특질을 정지한 분석에 근거하여 새롭게 해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기존에는 부정적으로 평가되었던 여담적 작가와 여담적 소설 텍스트를 새로운 문학적 관점의 연구를 통해 재평가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다.

또한 아직까지 시도되지 않았던 다양한 협력 연구 및 응용 연구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예를 들어, 서양 수사학과 동양 수사학에서 여담에 대한 이론적/비평적 견해의 상호 비교연구는 여담 이론의 근간을 놓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이다. 또한 한국 고전 서사체의 연행에서의 여담적 담화 부분과 한국 현대소설의 여담적 담화 부분을 비교하는 연구도 가능할 것이다. 이 연구의 경우, 특정한 텍스트 내의 담화의 비교라는 협의의 의미를 넘어서, 구술 문학/연행 문학과 기술 문학/당대 문학의 텍스트 구성과 시학에 대한 장르론적인 비교 연구의 주춧돌을 놓는다는 중요한 의미를 획득한다.

마지막으로, 여담 연구의 문학교육으로의 응용 가능성이다. 문학교육 현장에서 소설의 서사 구조나 담화 특징에 관한 교육은 대체로 문법적인 규범 미학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문학교육에 활용되는 텍스트가 대부분 보수적인 평가에

의해 선정된 정진인 까닭이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여담적 소설 텍스트는 교육에서 배제되고 소설에 대한 평가와 감식안의 교육에서도 여담적 텍스트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강화되기 마련이다. 현대소설의 여담적 담화 연구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 소설의 장르적 특성이 개방적이며 탈구성적인 대화성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여담적 소설의 구체적 사례들을 교육한다면 이론과 작품 양 측면에서 소설 교육의 쇄신을 이룰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주제어: 여담, 담화, 최인훈, 『서유기』, (탈)식민주의, 지식인, 환상, 미궁, 권위적 담론

<참고문헌>

1. 자료

최인훈, 『서유기』, 문학과지성사, 1977/2008.

2. 논저

고영진, 「병리학적 환상과 글쓰기 방법으로서의 여담: 허윤석의 『구관조』를 중심으로」,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34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7.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 바흐친의 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1988.

란다 사브리, 이충민 역, 『담화의 놀이들』, 새물결, 2003.

로렌스 스티, 홍경숙 역, 『트리스트럼 샌디』 1~2, 문학과지성사, 2001.

미하일 바흐친 / V. N. 볼로쉬노프, 송기한 역, 『언어와 이데올로기』, 푸른사상, 2005.

미하일 바흐친, 김근식 역, 『도스토예프스끼 시학: 도스토예프스끼의 창작의 제문제』, 정음사, 1988.

미하일 바흐친, 전승희 · 서경희 · 박유미 공역, 『장편소설과 민중언어』, 창작과비평사, 1988.

박은태, 「최인훈 소설의 미로구조와 에세이 양식 - 『서유기』를 중심으로」, 『수련어문논집』 제26·27집, 수련어문학회, 2001.

송기섭, 「여담의 구실과 서사전략」,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제29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5.

에른스트 벨러, 이강훈 · 신주철 역, 『아이러니와 모더니티 담론』, 東文選, 2005
여홍상 편, 『바흐친과 문학 이론』, 문학과지성사, 1997.

오운호, 「『서유기』의 수사적 상황과 근대시민의 탈국가 의식」, 『한국문학이론과 비평』 12권 4호 제41집, 한국문학이론과 비평학회, 2008.

이상진, 「『토지』에 나타난 여담의 성격과 서술전략」, 『현대문학이론연구』 제63집, 현대문학이론학회, 2015.

이상진, 「『토지』에 나타난 여담의 수사학」, 『구보학보』 13집, 구보학회, 2015.

- 장석주, 「여담적 작가의 탄생 - 김훈론」, 『풍경의 탄생: 한국시의 이미지 계보학을 위해』, 인디북, 2005.
- 정혜경, 「이제하 소설의 서술 방식 연구 -〈환상지(幻想志)〉를 중심으로」, 『현대소설연구』 제33집, 한국현대소설학회, 2007.
- 주네트 · 리뢰르 · 화이트 · 채트먼 외, 석경징 · 여홍상 · 윤희녕 · 김종갑 편, 『현대 서술 이론의 흐름』, 솔, 1997.
- 함돈균, 「최인훈 『서유기』의 다성성(多聲性)과 아이러니 연구」, 『國際語文』 제42집, 국제어문학회, 2008.
- Charls I. Schuster, "Mikhail Bakhtin as Rhetorical Theorist," *College English*, Vol. 47, No. 6(Oct., 1985).
- H. 포터 애벗, 우찬제 외 공역, 『서사학 강의』, 문학과지성사, 2010.

[Abstract]

**A Study on digression in Korean Contemporary Novels
- Focusing on Choi In-hoon's *Seoyugi*(Journey to the West)**

Noh, Dae-won

In the novel text, 'digression' is a narrative form that takes a moment to break away from the central subject that was originally dealt with. It is also a discourse form of wordy chats, long talk, rambling and repeats. It has been regarded as an unnecessary redundant discourse and has been excluded for a long time. But it has its own aesthetic and can be a clue to the new interpretation.

This paper attempted to characterize novels and actual text criticism for full-scale rhetorical study on the oral discourse of novel texts. In Korean modern novels, the Korean texts are classified as follows: first, knowledge (intellectual) novels and ideological novels, second, postmodern novels and avant-garde novels, third, popularist roman-fleuve, fourth, novels containing everyday experiences and stories of everyday life, fifth, psychological and psychopathological novels.

This paper focuses on the digressional discourse of Choi In-hoon's novel, *Seoyugi*(Journey to the West), so that the concrete text critique work can be linked with the typification work. *Seoyugi* can be understood as a changeable digressional format such as 'Sun Wukong', or as a structure of the labyrinth. This is a the (post)colonial intellectual's fantastic story exploring the identity, and the tragedy of modern intellectuals surrounded by authoritative discourse.

【Key words】 : digression, discourse, Choi In-hoon, *Seoyugi* (Journey to the West), (post)colonialism, intellectualism, fantasy, labyrinth, authoritative discourse

노대원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조교수

(63243) 제주도 제주시 제주대학로 102, 사범대1호관 국어교육과

전자우편: novel@jejunu.ac.kr

이 논문은 2017년 1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7년 3월 7일에 심사 완료되어 3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